

우유 값 인상 '초읽기'...정부, 원유 가격 결정 체계 손본다

전남 2분기 기준 젓소 사육 역대 최저...지난해 원유 생산 485t 감소 생산·자급률 감소에 '낙농산업 발전위' 구성...생산비 연동제 등 논의

이달부터 우유 값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지역 올해 2분기 기준 젓소 사육 마릿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남 원유(原乳) 생산량은 전년보다 485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원유 생산량은 14만4406t으로, 전년(14만4891t)보다 485t(-0.3%)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원유 생산량은 3만9352t(1.9%) 증가한 208만8786t을 기록한 가운데,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1403t), 인천(-978t), 전남(-485t), 제주(-154t), 세종(-145t), 부산(-137t), 울산(-41t) 7개 지역만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 원유 생산량(14만4406t)은 전국 생산량의 6.9%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41.6%), 충남(16.8%), 경북(8.0%), 전북(7.6%)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양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전남지역 젓소 사육 마릿수는 이력제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했다.

2분기 전남 젓소 마릿수는 2만8996마리로, 지난해 같은 분기(3만344마리)보다 1348마리(-4.4%) 감소했다. 이 같은 젓소 사육 감소는 2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만406마리였던 사육 마릿수는 3만36마리(올 1분기), 2만8996마리(2분기)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년 동안 유제품 소비와 수입은 증가했지만, 생산과 자급률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제품 총 소비량은 지난 2001년 304만6000t에서 지난해 447만t으로, 20년 새 46.7%(142만4000t) 증가했다.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 역시 지난해 243만4000t으로, 20년 전(65만3000t)보다 273%(178만1000t) 폭증했다.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001년 233만9000t에서 지난해 208만8786t으로 10.7%(-25만t) 감소했다.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01년 77.3%→2005년 73.6%→2010년 65.4%→2015년 56.5%→2020년 48.1%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년 동안 자급률은 무려 29.2%포인트나 떨어졌다.

우유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낙농가로서는 더 산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해도 보상을 받을 유인책이 없어 참여가 저조했다.

발전방안에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생산비 연동제 등 원유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꾸준히 증가하는 생산비 절감 ▲연구개발(R&D)과 정부 예산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이달 1일부터 생산된 원유 가격을 l 당 947원으로 21원 올린 내용을 담은 '유대조건표'를 지난 17일 각 우유업체에 보냈다.

막거리 줄인상을 우려한 농식품부가 6개월 유예 해달라며 설득했지만, 낙농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우유업체들은 이달 1~15일지 원유대

금을 인상된 가격으로 20일께 낙농가에 지급하게 된다. 원유 대금은 보름마다 정산한다.

원유 부담이 커지게 된 우유업계에서는 우유 가격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커피와 과자, 빵 등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다른 제품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지역 대형마트에서 조사한 지난 20일 기준 우유 1l 당 소비자 판매 가격은 2540원-2570원으로, 평년 가격(2533원)보다 최대 1.5% 높았다. 평년 가격은 올해를 제외한 5년 동안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배추 재배면적 30% 급감...올해 9만㎡ 계약 재배

농협 광주본부, 가격 안정화 도모 계약재배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광주지역 배추 계약 재배 면적을 9만㎡로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최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시 배추계약재배 사업추진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광주 김장대전 원료생산 지원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화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시 생명농업과 관계자와 지역별 배추 생산 대표 농가, 김치제조업체 대표, 참여 농협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2021년 광주 배추계약재배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추 계약재배 참여 농가와 수매 업체에 자재 및 물류비로 지원된다.

올해 배추 계약재배 면적은 9만㎡이다. 지난해 광주 배추 재배면적은 58만㎡로, 전년보다 30%(-25만㎡)나 줄었다.



농협 광주본부가 최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광주시 배추계약재배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대표 농가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듣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올해는 약정 위배 농가와 업체에 엄격한 벌칙(패널티)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수 배추 생산농가에는 우대 지원을 낳힌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작기에 영농자재를 지원

하고 생산관리를 철저히 적용해 광주 김장대전에 소요되는 배추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부, 수확기 맞아 과일·채소 주산지에 농작업 인력 지원

올 수확기 정부의 인력 수요 중점관리 중점 사업 21곳에 나주, 해남, 무안 등 전남 3개 지역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수확기(8~10월)를 맞아 정부가 과일과 채소 주산지에 농작업 인력 지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수확기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품목의 중점

관리 사업 21곳에 대해서는 월별·순별 인력수급 계획이 수립된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전남 20개 시·군 35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주에서도 2곳 운영되고 있다.

시·도와 중점관리 사업은 품목·시기별 인력 수요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인력 중개, 인근 지역 대학·봉사단체 등을 통한 일손 돕기 등을 사전에 계획해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지역에 중점

적으로 지원한다.

자체적으로 인력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지자체에는 군 장병·사회봉사명령자·기업 등 민간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준다.

마늘·양파 주산지에는 농기계작업반을 시범 운영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고 농가의 농작업 대행 신청을 받아 중개해줄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찾아가세요”

농협 전남본부, 11월 말까지 안내통지 발송·방문 등 병행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탈퇴(준)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찾아가기 운동' 대상은 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지분, (준)조합원 탈퇴 후 미환급 가입금, 장기간 청구가 없는 배당금 등이다.

지역농협은 해당 탈퇴 조합원에 지분환급 청구 안내통지서를 3회 이상 발송하고, 전화 및 현지 방문 등을 병행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통지서가 반송된 탈퇴조

합원에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 받아 해당 농·축협에서 새 주소로 안내 통지서를 재발송한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준)조합원은 전국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환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수령 가능 여부는 농협 홈페이지(nonghyup.com)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준 일 미환급 지분·배당금 유무 및 해당 사무소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협 전남본부는 탈퇴 조합원이 있고 있는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 환급 안내에 힘써 고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일글

“지역과 성장할 수 있는 ESG경영 펼칠 것”

최 주 환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부임한 최주환(56·사진) 본부장은 본격 업무 시작을 앞두고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최 본부장은 전남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지난 1992년 공사에 입사한 뒤 CS 경영부장, 인사부장, 재무관리처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6개월 동안은 인



재육성처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농식품 행정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고 이듬해에는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

최 본부장은 “농수산식품의 생산과 수매·비축의 최대 거점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중책을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